농협 고창군지부, 소외계층에 선풍기 전달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문구)는 2일 (사) 한두레 장애인자립생활협회 고창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선풍기 20대(100만원 상당)을 기부하는 지역사랑 실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농협중앙회의 사회공헌부서인 도농상생 국민운동본부의 후원을 받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건강한 여름나기 정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문구 지부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어느때 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며 "서로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앞으로도 농협은 금고은행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세계문화 · 요리 '글로벌 요리교실'

익산 글로벌문화관, 결혼이주민에 세계 여러나라 음식 · 문화 배워

전 세계 문화와 요리를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글로벌 요리교실'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내 최초 선보인 글로벌 전시체험시설인 익산글로벌문화관에서는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마다 세계 여러나라의 요리를 통해 식생활 문화를 경험하는 '글로벌-쿡 요리교실'을 인기리에 진행 중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세계 나라의 대표요리를 배우는 동시에 다양한 정서와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올해 초 시민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개설된 만큼 높은 참여도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세계의 대표요리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이색체험으로 요리 강사는 품평회를 통해 뛰어난 요리 재능을 가진 결혼이주민을 선정해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수업당 15명이 참여 가능하며 △ 9월, 중국 시엔빙 · 쏸라탕 △10월, 베트남 반새우 · 분짜 △11월, 태국 톰양꿍 · 얌운센 요리 교실에 현재 참가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중이다. 재료비는 1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결혼이주민에게는 안정적 정착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세계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앞으로도 적극 선보일 예정"이라며 "글로벌문화관이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는 명품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글로벌문화관은 세계문화체험, 원데이클래스, 도심 글램핑, 미니콘서트 등 다양한 세계문화체험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있다. 전시 · 체험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 · 공휴일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프로그램 예약은 홈페이지와 유선전화(859-5385~5386, 5496)로 가능하다. /익산=이재춘 기자

남원시 자봉센터,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장 김진석)는 지난달 18일부터 10일 간 업사이클링(새활용)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완성품 200개를 이달 2일 남원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통해 지역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식당에서 다 쓴 비닐랩통을 수거하여 알맞은 크기로 자른 후 전통 한지를 가지고 꾸며 연필꽂이를 만드는 것으로서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을 받아 남원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비롯한 지역 내 6개 자원봉사단체와 4개 장애인 기관의 자원봉사자 총 200여 명의 참여하에 진행되었다.

곽주영 행정지원과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해 다 쓰고 버려지는 자원들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입혀 새롭게 탄생시키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자원봉사로 진행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가진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고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지역 내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향후 업사이클링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전북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 동참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이 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 전북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에 2일 참여했다.

전북 쌀 지키기 88 릴레이 챌린지는 '쌀미(米)를 쪼개면 팔십팔(八十八)로 볍씨를 뿌리고 밥이 되어 사람 입에 들어가기 까지 농부의 손을 88번 거친다는 의미'로, 지난달 김관영 도지사를 시작으로 도내 기관장 88명의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쌀 소비촉진을 홍보하는 취지로 진행 중이다.

작년 수확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산지 쌀값은 7월 말 80kg 기준 17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하락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재고는 전년 동기 대비 41%가 증가해 올해 수확기 벼 값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범 도민 대상 '하루 두 끼는 밥심으로' 운동을 전개하며 쌀 소비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오재성 법원장은 "전주지방법원가족은 농업인을 위한 전북 쌀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 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심을 다하는 좋은 재판을 통하여 도민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법원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부안 꽃그림이야기, 인재육성 장학금 120만원기탁

꽃그림이야기(회장 전은숙)에서는 지난 1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하여 미래 인재육성 장학금 120만원을 기탁했다.

전은숙 꽃그림이야기 회장은 "이번 장학금은 압화공예 작가들로 구성된 회원들의 공모전 수상금 일부와 전시회 개최 등에서 얻은 수익금 일부를 부안군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기탁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부안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원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권익현 이사장은"꽃으로 아름다운 예술품을 창조하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손길과 따뜻한 마음으로 장학금 기부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지역 학생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재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꽃그림이야기는 들, 산에서 채취한 꽃, 잎등을 채취하여 건조한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소품, 악세서리 등에 응용하여 공예품을 만드는 압화 예술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군산 조촌동 30번째 착한 가게, 더글라스아이 탄생

군산시 조촌동에 30번째 착한 가게가 탄생했다.

조촌동은 지난 1일 관내 위치한 THE글라스아이 조촌점(대표:박효군)에 '착한 가게 제30호' 현판을 전달했다.

THE글라스아이 안경점은 평소 취약계층 성품 전달 및 초중고생 안경 지원 활동 등의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가게다. 삼학동 본점이 작년 11월 삼학동 착한가게가 됐으며 이번에 조촌점까지 착한가게 제30호점이 되면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착한가게는 지역 내 중소규모의 가게나 기업이 매월 일정금액의 정기 후원을 약속해 지자체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실시하는 각종 특화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캠페인이다.

박효군 THE글라스아이 대표는"삼학점에 이어 조촌점도 착한 가게로 참여하게 되어 너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영옥 조촌동장은 "착한 가게와 같은 따뜻한 마음이 계속해서 모아져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각종 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특화사업 추진하여 귀중한 기부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우석대, 장애학생 행동중재 직무연수

우석대학교 교육연수원은 2~11일까지 호남권역 유 · 초 · 중등 특수교육 담당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장애학생 행동중재 직무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일 교양관 6207호실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방명애 교육연수원장과 채정희 전북교육청 장학관, 김윤미 전북교육청 장학사, 최양미 전남교육청 장학관, 이영금 전남교육청 장학사, 연수생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학생 행동 문제에 대한 중재 및 지원 강화를 통해 행동중재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진행되는 집합교육은 △행동분석가 윤리 △행동 기능 평가 및 긍정적 행동지원 △단일 대상 연구 방법 및 실제 등으로 진행된다.

방명애 교육연수원장은 "장애학생의 행동중재에 대한 특수교육 담당 교사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긍정적인 행동지원 강화로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여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이번 연수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특화소득작목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간담회

진안군은 2일 농업기술센터 소교육장에서 '지역특화소득작목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사업의 중앙-지자체-민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특화소득작목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사업은 홍삼특구 지역인 진안군이 과거 9증9포로 제조하던 흑삼을 경제적이며 안전하게 제조하는 기술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이전받아 새로운 흑삼 신기술 선도단지로 도약하기 위해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 중인 시범사업이다.

이날 간담회는 농촌진흥청 특용작물이용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진안군 관계자 및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여 흑삼관련 법규 및 제도화 정책추진 상황 등을 공유하고, 건의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군은 사업장 별로 과제를 부여해 유해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지 않는 특허 제조법을 현장지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시제품 품평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간담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진안이 흑삼 일번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밑그림을 잘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순창군 드림스타트, 졸업기념 가족사진 촬영 지원

순창군 드림스타트는 여름방학 동안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중 초등학교 졸업생에게 졸업 기념 가족사진 촬영 및 중학교 입학 대비 증명사진을 준비하기 위한 '초등학교 졸업 기념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사진 촬영을 통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부모, 형제 모두 졸업하는 아동의 성장을 응원하고 가족사진 촬영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만들고자 계획했다.

주민복지과 양병삼 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동들이 초등학교 생활을 끝내며 가족사진 촬영을 통해 가족들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부안 상서면 박영배씨, 농사지은 보리쌀 기탁

부안 상서면 청등마을 개발위원장 박영배 씨는 지난 1일 관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상서면 사무소에 손수 농사지은 보리쌀 2kg 100포를 기탁했다.

박영배 씨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성으로 농사지은 보리쌀을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미순 상서면장은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주변의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고, 지역의 나눔문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임실 지사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주민교육 실시

지사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주민위원회(위원장 최낙운)가 지난달 30일 지사면 복지회관에서 위원 및 주민 등 약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생활거점사업 주민교육을 실시했다.

주민교육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 및 선진지 견학 안내 등이 이뤄졌고, 향후 사업추진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사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현재 세부설계용역 제안 공모 절차를 진행 중으로 내년 초에 착공하여 10월경 준공 예정이다.

현 지사면 복지회관이 지사복지향유관과 지사랑마당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여 주민들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쉼터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송기찬 지사면장은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